

보도시점 2025. 5. 30.(금) 10:00 / 배포 2025. 5. 30.(금) 08:30

치킨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행위 제재

- 포스용지, 식품라벨스티커 등 거래 강제한 ‘푸라닭’, ‘60계’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치킨 업종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수증 인쇄용지(포스용지), 홍보용 패널(라이트패널) 등의 품목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 7. 5.부터 2024. 2. 26.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 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스티커 등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

* 2023년 말 기준, (주)아이더스에프엔비의 매출액은 1,402억 원이고 ‘푸라닭’ 가맹점 수는 714개 점

(주)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들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주)장스푸드는 2022. 11. 22.부터 2024. 7. 31.까지 가맹점 또는 상품 홍보 포스터를 삽입하여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용도의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였다.

* 2023년 말 기준, (주)장스푸드의 매출액은 1,501억 원이고 ‘60계’ 가맹점 수는 661개 점

(주)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닌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본부	(주)아이더스에프엔비			(주)장스푸드
제 품 명	포스용지	보안스티커	식품라벨스티커	홍보용 라이트패널
제품사진				

공정위는 위 행위들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 등 중심상품의 맛·품질 유지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자신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 특정 제품을 반드시 가맹본부 등 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동안 공정위는 외식분야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상품의 품질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품을 자신 또는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제재해왔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가 주방세제 등 세제류, 싱크대 등 설비류, 플라스틱 용기·뚜껑 등 포장용기류, 국자·주걱 등 주방집기류 등의 물품을 자신 또는 특정 사업자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보아 제제한 사례가 있다.

품목명 및 제품 사진	비 고 (세부업종)
<p>주방세제, 손 세정제, 바닥세척제 등 세제류</p> <div>     </div> <p><다목적주방세제> <손 세정제> <손소독제 디스펜서> <주방세제 펌프></p>	피 자
<p>냉동·냉장작업대, 싱크대, 냉동고, 모니터, 진열장 등 설비류</p> <div>     </div> <p><냉동작업대> <3조싱크대> <냉동고> <메뉴보드 모니터></p>	아이스크림
<p>실링용기, 원형 용기·뚜껑 등 포장용기류</p> <div>     </div> <p><실링용기> <원형뚜껑> <원형용기></p>	족 발
<p>बाट, 불, 휘핑기, 마스크어, 국자, 주걱, 쓰레기통, 도마, 칼 등 주방집기류</p> <div>     </div> <p><스테인리스 바트> <멀티불> <휘핑기> <마스크어></p>	치 킨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하여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①해당 구입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②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등을 각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정위는 구입강제품목과 관련하여 개별품목에 대한 조사·제재와 더불어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가맹계약서 변경 여부를 점검**한 바 있다.

* 구입강제품목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붙임]

** “구입강제품목 가맹계약서 기재 관련, 점검대상의 78.9% 변경계약 체결 완료”(2025. 5. 19. 보도자료)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구입강제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을 위한 점검도 계속할 것이다.

<붙임> 구입강제품목 관련 주요 법령 개정사항

담당 부서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가맹거래조사팀	책임자	팀 장	박진석 (044-200-4620)
		담당자	조사관	윤두호 (044-200-4618)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1

구입강제품목 가맹계약서 기재

□ (주요내용) 가맹계약서는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관련법령)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 (참고자료) “필수품목 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및 문답서”(2024. 6. 20. 보도자료)

“필수품목 가이드라인 관련 질의응답집”(2024. 8. 8. 보도자료)

2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제

□ (주요내용)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함

* ▲구입강제품목을 추가하는 경우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등

□ (관련법령) 법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나. (4)

법 시행령 [별표 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제13조 제1항 관련)

2.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맹본부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의 거래를 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세부내역, 가격, 수량, 품질 및 그 거래상대방 등 거래조건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칠 것

※ 거래조건 변경 시 구체적인 협의절차 및 방법 등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2024. 12. 5. 시행) 참조